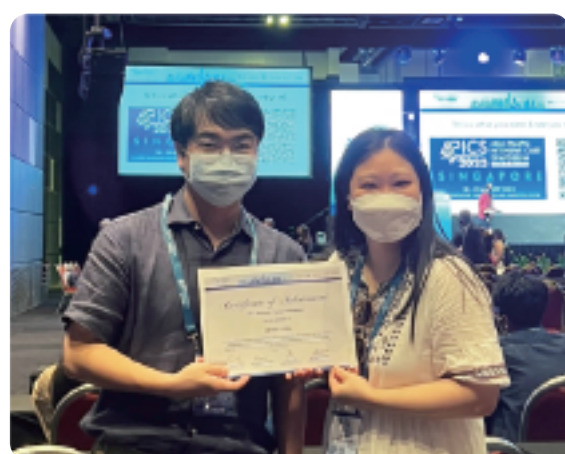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 오래 과거를 끌고 다니며 삽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양,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착각입니다. 과거의 나, 불만의 나, 생각 속의 나와 그만 이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의 가장 좋은 나와 만나세요.

##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 정지윤 박사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중환자의학회 최우수초록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DM 통계연구소 및 만성질환-환경의학 연구소 정지윤 박사가 공동으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중환자의학회에서 구연발표한 논문이 최우수초록(best abstract)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성신대체요법을 받게 된 급성신부전 환자의 단기 사망 예측에서 기존에 잘 알려진 당뇨병 및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동반 질환뿐만 아니라 근감소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박재윤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여러 대학병원의 대규모 실제 임상 데이터와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한 분석방법으로 최근 중환자 사망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근감소증의 영향을 증명한 귀한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골다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교신저자 최한석 교수)가 골다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on the risk of fractures in patients with new-onset type 2 diabetes’ 논문으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연구 결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 환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고관절 골절 발생이 31% 감소, 척추 골절은 27% 감소했다. 또한,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 운동을 하지 않았던 환자라도 새로 운동을 시작한 경우 고관절 골절과 척추 골절 발생이 각각 24%, 15% 감소함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당뇨병 초기에 적극적인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조절이 혈당 뿐 아니라 골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로, 이승은 교수는 당뇨병 진단 초기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 지도 학생,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전 우수상 수상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김보규, 김혜인, 이성민 학생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의 지도하에 참가한 ‘의과 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학습자료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헌 교수의 지도, 감수 하에 학생들이 직접 촬영, 제작한 학습자료는 자체 제작 영상물의 형태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OSCE 항목 중 응급 처치(기본심폐소생술, 제세동, 기관삽관)를 주제로 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학습자료 하나로 응급처치 항목을 모두 습득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의과대학 이러닝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게재돼 전국 의과대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제공된다.



## 응급의학과 최문수 전공의, 2022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최문수 전공의가 10월 13일, 14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드물게 보고된 바 있던 식도열공탈장(hiatal hernia)에 의해 발생한 실신과 달리 아직 보고된 바 없었던 모르가니 탈장(Morgagni hernia)에 의해 우심방의 폐쇄성 쇼크로 발생한 실신에 대한 연구로 응급실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들로 추가적인 실신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한응급의학회 우수포스터 상을 수상했다.



## ‘CEO 인문학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와 건강검진 업무협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24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교 ‘CEO 인문학 최고위과정’ 총동문회와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CEO 인문학 최고위과정 동문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고, 최고위과정 동문들은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범선 병원장은 “앞으로 CEO 인문학 최고위과정 동문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인문학 최고위과정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 조계종출판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불서 415권 기증

조계종출판사가 10월 14일 불서 415권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증 했다.

출판사측은 병고와 싸우는 환우와 가족의 치유를 발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불서를 나눔으로써 힘든 시간 자비와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기증은 해량스님(오대산 상원사 주지)과 탄하스님(前 조계종총무원 재무부장)이 각각 100만 원씩 보시하였으며, ‘귀의합니다’ 200권, ‘계냐의 별’ 100권 등 총 415권이며, 금액으로는 약 6백4십만 원에 달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조계종출판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기증받은 도서를 법당과 병동, 외래 등에 비치하여 환자, 보호자,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봉선사 성지순례 다녀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에서는 10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교종 본찰 봉선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22년도 ‘함께 가는 소규모 성지순례 3차’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성지 순례에는 지도법사 능지스님, 백용해 연우회 부회장, 김광기 기획처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연우회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정 해설사로부터 봉선사의 역사와 문화를 들으며 천년고찰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